

94. 2. 28(?)

현장추적

중·고교 서점가 저질광고 봇물

학교주변 성인잡지 '중독'

94. 2. 28

'신혼 성생활 가이드' '섹스 데크너'.

서울 서초구 ㅇ고교 앞 한 서점. 낯뜨거운 선정적 문구의 성인용 잡지 광고가 학생들의 눈길을 잡아 끈다.

상반신을 거의 드러낸 여자 모델 사진이 서점 출입문에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고 진열장에는 누드 사진집도 버젓이 전시돼 있다.

이런 성인용 잡지 광고물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강남구 ㅈ여고, ㅇ고, 서초구 ㅅ고, 마포구 ㅅ여고 등 서울지역 대부분의 중·고교 부근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참고서나 문구류를 판매하는 학교 앞 서점의 주고객이 학생들인 점을 생각하면 이런 잡지 광고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쉽게 짐작이 간다. 실제 이런 광고는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구매로 그대로 연결된다.

서초구 ㅇ고 양아무개(17)군은 "서점에 붙은 광고에 이끌려 호기심으로 성인용 잡지를 한 번 사본 뒤부터는 아예 친구들과 돈을 모아 매달 사서 돌려본다"고 말했다.

반발거숭이 여성들의 사진과 야릇한 이야기들로 꾸며진 이런 성인 잡지들은 한창 성에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서울 ㅅ고 정아무개(16)군은 "참고서를 사려고 서점에 들렀다가 성인용 잡지가 눈에 띄기에 사서 숨겨놓고 몰래 보았는데 나중에야 이 잡지가 이미 학교 친구들에게는 베스트셀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런 성인용 잡지는 현재 10여 쪽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선정적 사진·문구로 유혹...성범죄 부추겨
당국, 단속법규없이 업주들 자제 종용그쳐

서울 서초구 ㅅ고 주변의 한 서점에 붙어 있는 성인잡지 광고물. 서울시내 중·고교 주변 서점들이 저질 성인용 잡지를 무분별하게 학생들에게 팔고 있으나 단속법규조차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철규 기자

여자 누드가 대담하고 내용도 '진한' ㅇ, ㅁ, ㅇ 등의 잡지가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서울 서초구 ㅅ고 앞의 한 서점 주인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잡지의 경우 갖다 놓기가 무섭게 팔려 나간다"며 "광고물을 붙여

놓을 경우 판매량이 부쩍 늘는 게 사실"이라고 '광고효과'를 귀띔했다. 그는 또 "어떤 학생들은 서점에서 마음에 드는 잡지를 점찍은 뒤 학원가에서 '마음 놓고' 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한 선정적 잡지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학교 앞이나 주변 서점에서도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학교주변 유해환경 단속과 관련 법규는 학교부근변과 7

시행령이 있다. 이 법규는 학교주변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누어 극장, 만화가게, 여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주변 서점들의 선정적 잡지 판매에 대한 단속규정은 없다.

저질 성인잡지의 판매가 끼칠 나쁜 영향에 대한 교육당국의 인식도 별로 높지 않다. 각 교육청에서는 분기별로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적발된 업소의 단속을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성인잡지 판매는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교육청 학교보건계 최인수씨는 "학교주변 서점들의 선정적 잡지 판매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으나 단속법규가 없어 업주 스스로의 자제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구청쪽도 마찬가지다. 각 구청은 올해초 대통령이 발표한 생활개혁 10대 과제에 포함돼 있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방침에 따라 일제단속을 펴고 있으나 성인잡지 판매 단속지침이 없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떼어 달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어 철거를 권유하는 게 고작이다.

참교육실천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정진(48·여)씨는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보추기는 저질 선정적잡지가 학교주변 서점들을 통해 유통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단속법규 제정과 함께 학교, 학부모,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저질잡지를 쫓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보기 기자